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8. 5. Vol 252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꽃은 필 뿐

꽃등을 달고 걸어간다

한참을 내어주던 맨발가락이
꽃잎을 털어낸다

논에는 물길에 새로 나고
하늘이 참방거린다
물바구미 행차에
돌미나리 길을 열고
실지렁이도 독길에
항아리 빛어 놓는다

햇살은 사방사방 날개짓하고
독길 조팝꽃
핑핑 터지는 하얀 기억들이
자근자근 들려오는 듯
간지럼 피우는 바람은
꽃마당을 수놓으며 지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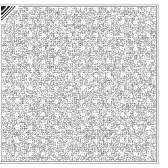
나는 너의 향기와 웃음이 다칠까봐
보랏빛 꽃밭에서
조심스레
한마디 말을 건넨다

꽃이 핀다



서 용 레

- 문학저널 시 등단
- 시집 「초원의 여자」
- 수상 : 대한민국 불후 명작상 (초원의 여자 시집)
- 한국문인협회 청주문인협회
- 문학저널문인회 여백문학회
- 현 문학저널 충북지부 사무국장
- 현 청주문인협회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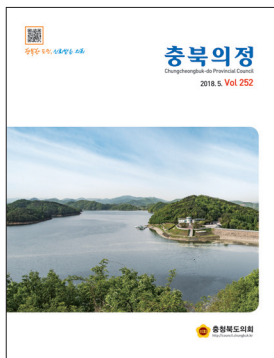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8. 5. Vol 252

Contents



대청호 (물문화관)

대청호는 금강의 물줄기를 막아 생긴 호수로 청주의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다양하게 쓰이며 청주지역의 젖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청호반길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며 사계절 힐링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중부출판사

- 04 | 제363회 임시회 주요내용
- 06 | 미래 충북 문화관광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 연구용역 보고회
- 07 | 일본 야마나시현의회 우호교류 방문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08 |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방의회 운영 및 개원준비를 위한 직무연찬
- 09 | 청소년의회교실·의정체험 프로그램 시행
- 10 | 6·13지방선거 안내
- 12 |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 19 | 대집행부 질문
- 20 | 제363회 임시회 주요 처리의안
- 24 | 5분 자유발언
- 26 | 건강·법률상식
- 28 |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 의정논단

- 발 행 일 : 2018년 5월
- 발 행 인 :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양희
- 발 행 처 : 충청북도의회
- 구독신청 :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 (043) 220-5123
- F A X : (043) 220-5119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buk.kr>



충청북도의회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제363회 임시회를 열어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63회 임시회

충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등 민생현안 의결

의원발의 조례안 17건 등 도민 삶과 밀접한 의안 34건 제·개정

충북도의회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제363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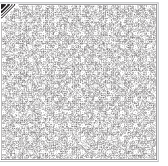
3월 22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하고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이어, 임병운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하여 △오

송 제1산업단지 바이오메디컬지구 관련사항 △오송 제2산업단지 바이오폴리스지구 관련사항 △오송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목조목 물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양섭 의원은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관련 사항을, 박우양 의원은 미래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관련 사항을, 이숙애 의원은 미투(Me Too)와 관련한 사항을, 윤홍창 의원은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를 주제로 각각 발언하며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임시회 기간에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본예산보다 4.08%(1033억2898만



제363회 임시회 주요처리의안

-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증액한 2조6365억3529만5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추가추경예산안의 주요 시책사업은 행복씨앗학교운영 10억1500만원, 학교혁신지원 2억4260만원, 충북 행복교육지구운영 1억6733만원 등이며, 이중 민주시민 역량강화교육 322만원과 민주시민교육원 원격연수 300만원, 인성교육 민간사회단체지원 3000만원, 정보공시 일용인부임 404만1000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는 4026만1000원을 삭감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4월 5일 실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과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양희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모든 역량을 모아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한편, 제10대 도의회의 열성적인 노력들이 도민 행복으로 이어져 보다 성숙한 기반 위에서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충북 문화관광 '정책 아젠다(Agenda)' 발굴

행문위, 의정학술 연구용역 보고회·자문위원 간담회 실시



행정문화위원회는 3월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래 충북 문화관광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한 중간 보고회와 자문위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광옥)는 3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래 충북 문화관광을 위한 정책 아젠다(Agenda) 발굴'을 주제로 의정학술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와 자문위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행정문화위원회가 미래 충북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할 목적으로 연 이번 중간보고회는 현 충북 지역 관광산업 실태조사와 타 지방자치단체·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광옥 위원장, 이연구·박한범·연철흙·박봉순 의원 등 도의원들과 민양기·지선영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보고회는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서원대 산학협력단 김영식 교수로부터 그간의 추진상황과 연구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어진 보고회에서 산학협력단은 미래 문화관광 정책을 세 개의 아젠다로 구분하여 △마음이 회복되는 관광 충북(종교+인문+감성) △몸이 재충전되는 관광 충북(힐링+휴양+음식) △지역이 풍족해지는 관광 충북(지역연계+기반확충+일자리)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아젠다에 대해 이연구 의원은 "충북의 역사적 가치 발굴이 미흡해 보이는데 영남

학과 역사계승의 사례를 본받아 도내 전 지역에서 기호학과를 계승하는 역사가 접목된 관광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한범 의원은 "내륙지역인 충북도의 현실을 감안하여 충주호와 대청호를 적극 활용한 사업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철흙 의원은 "청주는 미세먼지 심각도시로 환경요인이 매우 열악하여 뷰티·헬스를 중시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선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순 의원은 "도내 북부지역에 편중된 관광객 유입이 충북도 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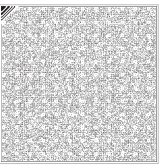
역이 다함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에서 심도 있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화관광 분야를 맡고 있는 민양기 자문위원은 "용역목적이 미래 아젠다 발굴인데 충북의 미래에 대한 개념 설정이 부족하고 문화관광 범위도 극히 광범위해 '충북이 가져가야 할 관광 아젠다'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산학협력단은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관광분야에 역사 반영 제도화' 등의 제안사항들이 최종 결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관광트렌드가 산에서 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아래 충주호 복합공간 개발용역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 중간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능하다면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단은 또, "이번 제기된 제안사항 외에도 고려할 사항들이 나타나면 정책적 제안으로 충북도에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옥 위원장은 "행정문화위원회 의정학술 연구용역 추진에 자문의원들의 전문적인 검토와 여러 의원들의 의견 제안으로 한층 더 높아진 양질의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일본 야마나시현의회 대표단 충북도의회 우호교류 방문

사회 경제 문화 등 대·내외적 협력방안 마련 모색



충청북도의회는 3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일본 야마나시현의회 대표단과 상호 우호교류 증진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일본 야마나시현의회 대표단 일행이 지난 3월 26일 양도·현의회의 상호 우호교류 증진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충북도의회를 방문했다.

시라카베 켄이치 의장을 단장으로 한 야마나시현의회 대표단 10여명은 도의회를 방문해 김양희 의장과 도의원들을 예방하고 양 지역 간 우호교류 증진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환담회에서는 충북도의회와 야마나시현의회가 그동안 활발하게 교류하지 못했던 아쉬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는 양 의회가 상호 방문에만 국한됐던 우호관계를 적극 개선하고 사회·경제·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시라카베 켄이치 의장은 “이번 방문이 충북도의회와 야마나시현의회 상호간에 이해와 신뢰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어 향후 양 의회가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양희 의장은 “양 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발전적인 상생협력 모델 제시로 상호발전에 기대와 희망을 주는 우호교류 관계로 진일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와 야마나시현의회는 지난 1992년 자매결연을 맺고 이를 계기로 교류를 시작했으나 일본이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는 등 일본의 과거사 부정 수위가 높아진 2008년부터는 관계가 소원해졌었다.

충북도·도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산검사 경험과 실무지식 풍부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

충북도의회는 3월 22일 실시된 제363회 임시회에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수행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 7명을 선임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1명, 재무관리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2명과 세무사 1명,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재무분야 전직공무원 3명 등 총 7명으로, 박종규 도의원, 김창섭·하동호 회계사, 이견민 세무사, 강성태 전 충북도 회계과장, 이흥신 전 충북도 세정과장, 김왕년 전 도교육청 기획관이 선임됐다.

이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5일 사전교육을 받은 후,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수행했다.

도의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해 “결산검사는 규정에 따라 단체장이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집행에 대해 전문적인 사전 검사를 하는 과정”이라며 “공정하고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역량 있는 전문가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검사 결과는 지방선거 후 오는 9월 새로 구성되는 11대 의회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6·13 지방선거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확정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도의원32명, 시·군의원 132명으로 조정



충북도의회는 3월 13일 6·13지방선거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의회는 3월 13일 제362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했다.

도의회가 이번에 선거구 획정을 의결한 것은 지난 3월 9일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고 각 시·군의 읍·면·동 명칭변경 및 청주·청원 통합으로 시·군의원지역선거구

에 대한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올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도의회는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의원지역선거구를 재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제출된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1명 증가한 132명(비례대표 16명 포함)으로 조정하고,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도의원 지역구의 변경으로 청주시 시·군의원 지역구를 재조정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원은 기존 28명보다 1명이 증원된 29명으로 확정되어 비례대표 3명을 포함,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도의회가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제10대 의회 마무리·제11대 의회 개원 준비 직무연찬

의회사무처 정례조회 실시해 사례중심의 강연 등 직무이해 도와

충북도의회가 4월 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조회를 가졌다.

이번 정례조회는 제10대 의회 의정활동 마무리와 11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조직역량 제고와 의정마인드 함양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문강사로 초빙된 백환기 지방의회연구소 교수는 '의회 선진화와 회의진행 전문가'를 주제로, 전영복 동연구소 연수처장은 '지방의회 운영과 개원 준비'를 주제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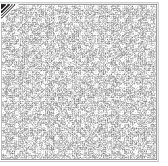
이날 초빙된 전문강사들은 실제 의회운영과 밀접한 사항과 사례 중심의 강연을 진행해 개원 준비를 앞둔 사무처 직원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됐다.

김양희 도의장은 "지방선거 등으로 어수선했던 시기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북도의회는 4월 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10대 의회 마무리와 제11대 의회 개원준비'를 위한 정례조회 및 직무연찬을 실시했다.



미래세대 위한 청소년의회교실·의정체험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의회교실’·‘스피치왕 대회’ 등 프로그램 지속 발굴



충청북도의회는 4월 27일 청주 오송초·옥천 동이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제58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충청북도의회는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돼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지역현안 등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의회가 2007년부터 시작한 '청소년의회교실'은 총 57회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에게 도의회의 문턱을 낮춰 개방함으로써 과거 권위적인 이미지를 벗고 체험·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민 의정 체험의 장'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4개 학교가 늘어난 16개 학교로 확대하여 연 8회에 거쳐 560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며, 지난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집계된 93%의 높은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인 부분은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욱 보완·개선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청소년들의 의견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시범적으로 '찾아가는 의회교실'과 '의회교실 스피치왕 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도민들과 소통하며 민주주의정치를 체험하게 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회는 또, 자유학기제 시행을 계기로 중·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의정체험 프로그램'도 연간 12회 운영하기로 했다.

의정체험 프로그램은 직업인으로서의 도의원을 이해하고, 직장 체험장으로서의 의정경험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도의회의 노력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교육부 주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청주 오송초·옥천 동이초 학생 올해 첫 의정체험

한편, 도의회는 4월 27일 올해 첫 번째로 청주 오송초등학교 학생들과 옥천 동이초등학교 학생 70여명을 초청해 '제58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실시했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입교식에 이어 도의원 소개 및 홍보영상물을 시청한 후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선출하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와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하며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직접 체험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이번 의정체험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의회교실 참여학교 현황

구 분	개최일	대 상
제58회	4. 27.(금)	청주 오송초, 옥천 동이초
제59회	5. 2.(수)	청주 창리초, 영동 황간초
제60회	5. 18.(금)	청주 행정초, 청주 개신초
제61회	5. 25.(금)	청주동중, 진천 덕산중
제62회	6. 1.(금)	청주 모충초, 충주 세성초

운영 프로그램(안)

행사명	시 간	행 사 내 용
안 내	10:10~10:30	·도의회 소개 및 내 (PPT,영상물)
입교식	10:30~10:50	·개회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환영사, 희망메시지 등
본회의 (의정선출)	10:50~11:30	·의장 선출의 건
중 식	11:30~12:30	·도청 구내식당
본회의 (안건처리)	12:30~13:30	·안건 6건(조례안2, 건의안4) ·5분 자유발언(4명)
설문조사	13:30~13:40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수료식	13:40~13:50	·수료증 수여 ·기념촬영
견 학	13:50~16:00	·청남대(청주 문의)

6월 13일은 동네 민주주의가 활짝 피는 날!

〈 자료제공: 충북선거관리위원회 〉

- 지방선거는 우리 가정과 이웃, 우리 동네 모두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선거이며 생활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 우리를 대표하여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 보고 선거에 참여한다면 우리 동네 민주주의를 활짝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선거의 종류]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

19세 이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999. 6. 14.이전 출생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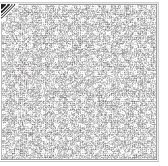
·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투표할 때 필요한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사전투표 이렇게 합니다!

- 투표기간: 6. 8.(금) ~ 6. 9.(토) 06:00~18:00
- 투표장소: 별도 신고 없이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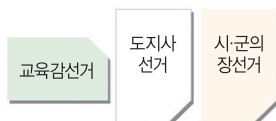
선거일 투표 이렇게 합니다!

- 투표기간: 6. 13.(수) 06:00~18:00
-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각 가정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가능
※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약도 등이 기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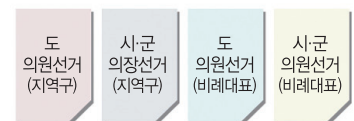
투표용지 이렇게 교부됩니다!

1차 투표용지 (3장)



※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지역은 투표용지 추가 교부

2차 투표용지 (4장)



의회운영위원회

제363회 임시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및 현안 협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병운)는 제363회 임시회 회기 중 두 차례 걸쳐 위원회를 열고,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기타 현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의회운영위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충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도의원과 전문가 등 7명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충북도의 환경산림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명칭을 건설환경소방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난해 출범한 충북여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고자 제안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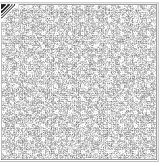
이어 실시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을 변경 선임하려는 것으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결산검사를 위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7인 중 1명을 변경 선임하기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1명과 재무관리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명, 충청북도 및 도교육청의 재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전직공무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또, 제10대 충청북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제364회 임시회를 오는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13일간 개최하여 제출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하고, 제11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 및 기타 당면 사항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3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기타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사전 간담을 실시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63회 임시회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제정



위원장
김영주 의원



부위원장
이양섭 의원



박우양 의원



박종규 의원



윤은희 의원



3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과 기타 현안을 심사·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는 1991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단의 설립목적, 주요업무, 임원 및 재원조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 조항들이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었고,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고 인정되어 별도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했다.

이어, 이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는 도민 각자가 스스로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문화·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사업규정,

도민대상 홍보,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했다.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위탁기간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 등의 고유 업무 수행능력검정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충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에 입주해 있는 15개 단체의 고유 기능이 최적화 되도록 신속히 불편사항을 해결할 능력과 각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63회 임시회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정착 지원 조례 등 제정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광옥)는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과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자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먼저,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처리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언구 의원은 이와 관련해 ‘매년 상당한 양의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실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봉순 의원은 “환경전담국 설치가 늦었지만 타 시·도의 오염물질 유출사례를 교훈삼아 환경문제를 미리 예방·개선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를 지양할 것과 전담인력 부족으로 부적절한 대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공공조형물 건립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체계적 사후관리를 위한 것으로, 박한범 의원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공공시설물 내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부칙에 규정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연철흠 의원의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고, 향후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장
최광옥 의원



부위원장
연철흠 의원



박봉순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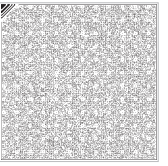
박한범 의원



이언구 의원



3월 2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63회 임시회

고병원성 AI 및 산불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 당부



위원장
이의영 의원



부위원장
황규철 의원



임병운 의원



3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과 제363회 임시회 운영에 관련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의영)는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8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의결했다.

먼저, 3월 22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심사한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도내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민박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충북도내 민박업체가 활성화 되어 관광객들의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도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산림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이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 생산라인을 신·증설하는 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과 충북경제 4% 실현은 물론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실시한 「2018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수입부분 공공예금 이자의 산출 착오분을 지적하고 “향후 정확한 수입의 예측과 산출을 통해 기금운용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오송산업단지 용도변경 기부금 수입금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그 지역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금을 투입·운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농정국과 간담회를 열어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상황과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상황 등의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제363회 임시회

생활밀착형 도민 안전정책 차질 없는 시행 촉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임순묵)는 제363 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계획안」,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임순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 중 일부를 삭제하여 연구센터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들은 심사에서 “민·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민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계획안」 심사는 충청북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에서 생산하는 원료의약품 원액의무균

충진·포장 및 완제의약품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2억5000만원과 오송바이오밸리 조기 완료를 위해 기업·기관 유치는 물론 바이오벤처기업 육성과 혁신창업을 위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2억원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의 소방차량 주차공간 증축을 위해 도유지 중 일부 면적을 사용하여 영구시설물(차고)을 축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심사에서 임순묵 의원은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의 소방차량 주차공간 증축을 위해 도유지 중 일부 면적이 사용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선배 의원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보면 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교환이나 매각을 하여 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일치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임순묵 의원



강현삼 의원



김봉회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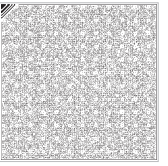
박병진 의원



장선배 의원



3월 22일 위원회 의원실에서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검토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교육위원회

제363회 임시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도교육청 제1회 추경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의



위원장
정영수 의원



부위원장
이종욱 의원



김학철 의원



윤홍창 의원



이숙애 의원



3월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영수)는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3월 26일 실시한 1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과 학연구원을 포함한 12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추진사업들이 교육적 목적과 취지에 초점을 두고 수립되었는지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효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검토과정에서 이종욱 의원은 제주와 대천해양수련원 비공개객실의 일반객실 전환여부를 묻고 “충청북도해양수련원이 학생·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홍창 의원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2017년도 사업 중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첨부하고, 전년도 사업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숙애 의원은 “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명

칭을 변경한 만큼 주요사업들이 외국어교육 뿐 아니라 국제교육과 관련된 사업개발과 운영을 통해 국제교육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영수 의원은 “각 직속기관들은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각 교육지원청 지역과 학교현장의 특성을 살린 교육 사업들을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실효성 있는 교육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3월 27일 실시한 제2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안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들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교육소통활동지원 1112만원, 민주시민인성교육민간사회단체지원 3000만원, 민주시민원격연수 300만원, 민주시민역량강화교육 322만원, 정보공시일용인부임 404만1000원 등 총 5138만1000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63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제363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242%인 57억 7661만원이 증액된 81억 5477만원이 계상됐다.

이는 오창과학산업단지 토지 용도변경 승인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수납한 기부금 53억 4642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억 6587만원으로, 향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기금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다.

또, 이후 진행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조 5332억원 대비 1033억원(4.1%)이 증액된 2조 6365억원이 계상되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육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주요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818억원, 자체수입 19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전년도 이월금 196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은 행복씨앗학교운영 10억원,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건립비 9억원, 자유학기제운영 4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운영 10억원, 유치원과 특수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2억5000만원,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 2억원, 돌봄교실운영 3억원, 친환경급식과 급식환경 개선학교 위탁급식비 7억원 등이 증액 계상됐다.

이날 심사는 예결위원과 도교육청 관계자간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계수조정 결과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 2조6365억 3529만 5000원 중 체육보건안전과 소관 민주시민 역량강화교육 등 총 4개 사업 4026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했다.

박병진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편성 시 사업별로 꼼꼼히 검토해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할 것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3월 2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임병운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오송 제1산업단지 분양·제2산업단지 정주여건 및 오송역세권 관련

오송 제1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 관련

[질문] 오송 제1산업단지의 사업부지가 당초 911만㎡에서 462만㎡이었으나, 이후 113만㎡로 시간이 갈수록 축소되었는데 현재 분양 및 개발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오송 제1산업단지에는 현재 63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침복단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침복단지는 71% 분양되었는데 유보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송 제1산업단지 분양 및 분양예정 181개 기업 중 7개 기업 정도가 입주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기기업 현황과 포기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답변] 현재 181개 기업 중 72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그중 미착공이 9곳인데 일부 시정명령과 청문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만약 포기기업이 나온다면 대체기업을 선정하여 모두 입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직까지 입주업체가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점이 많은데,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청산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업을 선정하여 오송 제1산업단지가 모두 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오송 제2산업단지 및 정주여건 관련

[질문] 오송 지역은 주거규모가 작고 상업시설이 미흡하여 미비한 수준의 문화·체육·교육시설과 장기 답보상태의 개발부지가 혼재한 상황인데, 현재 제1산업단지 내에 조성된 문화·체육·교육시설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오송에 현재 초·중·고 5개 학교와 바이오캠퍼스 1개, 문화시설은 오송종합사회복지관과 오송도서관,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 풋살장, 마을체육시설 등 23곳 정도는 있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질문] 오송에 제1·2산업단지를 비롯해 국책기관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시설은 전무하다는 부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오송 제1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제2산업단지 개발 시 문화·체육시설 분야를 보강하여 추진을 했지만 그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제3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만들게 되면 문화·체육·교육 등의 시설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제2산업단지의 개발이익금이 29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2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개발이익금을 반드시 우리지역에 조속히 투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개발이익금은 연말쯤 정산이 마무리 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오송 지역에 개발이익금이 투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송 역세권 개발 관련

[질문] 오송역세권은 충청북도의 공영개발 중단으로 도시개발구역이 2013년도 12월에 해제가 되었는데, 공영개발이 무산된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 가장 큰 원인은 공영개발 추진 시 우리 도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워 공영개발을 결국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공영개발 무산 후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그 당시 일정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오송역세권 개발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오송역세권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도지사께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363회 임시회 주요처리의안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임병운 의원)

[제안이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산림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 산림교육센터의 사업 및 운영·사용에 관한 사항
- 산림교육센터 사용에 관한 사항(교육시설 사용허가 및 취소 기준과 사용료 납부·면제·반환 기준)
- 효율적 산림교육을 위한 위탁운영 및 시설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시설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위탁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임순숙 의원)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 중 일부를 삭제하여 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센터의 기능 수정 등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종욱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 용어 추가 및 변경
 -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추가)
 - (현행) 지역주민 → (변경) 충청북도민
- 직속기관 등의 사용허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권리양도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양섭 의원)

[제안이유]

-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내용]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규정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도민 대상 홍보활동 규정
-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업무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 위탁 규정
-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노력 규정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최광옥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공공데이터를 도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용 권리를 규정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

[주요내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사항을 정함
-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품질관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과 경제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민간지원·인력양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한범 의원)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청남대를 국민과 소통하는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조항 신설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주차료 면제 조항신설
- 그 외, 국민과 소통하는 대표관광지 청남대 발전을 위한 기타 주차료 면제조항 신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연구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서비스 제공 및 민간활용 지원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도모

[주요내용]

-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두도록 함
- 충청북도빅데이터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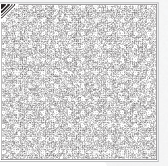
(대표발의 : 박봉순 의원)

[제안이유]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고함으로서 출소자들의 재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주요내용]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추진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정영수 의원)

[제안이유]

- 「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된 용어 정의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수익자부담경비’
- 적용범위를 규정함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
- 교육비 지원 범위를 규정함
 - 수업료, 입학금,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연철홍 의원)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개별 법령 수수료 개정사항 반영

[주요내용]

- 수수료 근거 상위법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
-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 삭제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삭제
-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 수수료 삭제
- 공유 수면 면허 수수료 산정 기준표 삭제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숙에 의원)

[제안이유]

- 독서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지역서점 등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발달에 기여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현행:「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 변경:「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 조례 목적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문 수정
 - 지적능력향상, 건전한정서 함양, 독서교육습관화
 - 독서능력향상, 지적·정서적 발달,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강화
- 용어정의에 지역서점에 관한 사항 신설
 -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협력체구축에 지역 서점 등을 추가하여 조문 수정
- 학교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항 삭제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박봉순 의원)

[제안이유]

- 2014. 9. 15.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규정 마련

[주요내용]

- 공공조형물의 정의
- 건립 비용부담
-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숙에 의원)

[제안이유]

-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에 지역서점을 추가하여 학교도서관 협력체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현행:「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 조례」
- 정의규정 신설
 -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학교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말한다.
 - ‘교육전문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 협력체구축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서점을 추가하여 조문 수정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의영 의원)

[제안이유]

- 도내에 생산라인을 신·증설하는 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과 충북경제 4% 실현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내용을 준용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모호한 용어를 정비

[주요내용]

- 도내 투자기업 지원 확대 및 모호한 용어정비
 - ⇒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준용
- 사후관리기간 시점 통일 및 기간 단축
 - ⇒ 투자기업이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통일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제안이유]

- 1991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주요내용]

- 재단의 설립목적에 대한 규정
 - 충청북도학사 재학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
- 재단 사업에 대한 규정
 - 장학시설 관리·운영, 장학지원 등
- 재단의 임원에 대한 규정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 재단의 재원조성에 대한 규정
 - 도 및 시·군의 출연금·보조금·대행사업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기부금·후원금,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재단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규정
 -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가능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구명칭 변경 및 지정해제에 따른 지구명칭 삭제

[주요내용]

- 지구명칭 변경 및 삭제
 - 바이오메디칼지구⇒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 바이오·관광·비즈니스지구⇒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 에어로폴리스지구⇒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 예코폴리스지구(삭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소방현장인력 보강과 환경 전담국 설치, 혁신도시 시군2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와 민선6기 공약 이행,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

[주요내용]

- 기구 조정
 - 신설 : 환경산림국
 - 명칭변경 : 바이오환경국 → 바이오산업국
- 분장사무 조정
 - 이관(환경정책, 기후대기, 수질관리 업무 : 바이오환경국 → 환경산림국)
 -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업무 : 농정국 → 환경산림국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세자권리보호업무 수행하게 하면서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도민의 권리구제 담당부서에 배치
-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5급 또는 4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조세·회계·법률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안전 심의, 고충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소방현장인력 보강과 환경 전담국 설치, 혁신도시 시군2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 새 정부 국정과제와 민선6기 공약 이행,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충정원: 3481명→3821명 (+340)
 - 집행기관의 정원: 1607명→1638명(+31)
 - 소방공무원 정원: 1761명→2070명(+309)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조정기준
 - 5급: 18%이내 → 19%이내
 - 8급·9급: 7.5%이상 → 6.5%이상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안 별표 3)
 - 일반직: 1479명 → 1510명(+31)
 - ▷3급(+1), 4급(+3), 5급 이하(+27)
 - 소방직: 1761명 → 2070명(+309)
 - ▷소방령 이하(+309)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의 심의·의결 받고자 함

[주요내용]

- (1회 추경) 2조6365억 3529만 5천원
- (기정예산) 2조5332억 631만 5천원
- (증 감) 1033억 2898만원 증(4.08% 증)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국정과제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에 부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의결을 거쳐 추진 중이던 재난안전체험관의 사업비 지원이 변경되어 규모를 축소하고자 변경
- 도 지회부와 119종합상황실 통합청사 신축을 통해 분산된 자원의통합관리 및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한 현장대응 및 지휘체계를 구축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재난안전체험관 신축 변경(안)
 - 도 소방본부 통합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신축(안)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충청북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 출연: 12억500만원
 - 오송첨복제단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에서 생산하는 원료의약품 원액의 무균 충전 및 포장에 위한 완제의약품 제조시설(국제적기준 부합) 구축
- 바이오 벤처기업 성장프로그램 운영비 출연: 2억원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는 바이오 벤처기업 성장 프로그램 운영 사업 도비 지원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 종료(18. 6. 1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탁대상: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 위탁기간: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18. 6. 12. ~ 21. 6. 11.)
- 위탁기관: 사업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 현, 위탁기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2015.6.12 ~ 2018. 6. 11.)
- 위탁방법: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 사업비: 5억4700만원* (도비 100%) * 연도별 변동 가능
- 위탁주요사무
 -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제공
 -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
 - 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컨설팅
 - 충청북도와 수탁법인에서 위탁받은 사업, 시설관리 및 임대사업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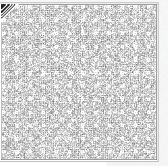
(제안 : 충청북도의회의장)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선임위원: 7명(도의원1,공인회계사2,세무사1,유경험자3)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대응과제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자문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
- 위원 임기 및 회의소집
 - 임기는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위원장이 필요한 때 회의 소집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존속기한 -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18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과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
 - 지방공무원 총수 : 3135명→3175명, +40명
-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
 - 일반직공무원 : 2883명→2908명, +25명(5급 이하)
 - 교육전문직원 : 236명→251명, +15명(5급상당 이하)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 기능지구 과학 사업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위치및기능
 - 위치: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 기능:과학사업화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 인력 양성 등
- 위탁운영 및 운영비
 - 위탁운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가능
 - 위탁범위: 입주공간지원·시설관리, 사업화 지원 컨설팅, 홍보,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 운 영 비 : 시설임대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수익금으로 충당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의 소방차량 주차공간 증축을 위해 도유지 중 일부 면적을 사용하여 영구시설물(차고)을 축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주요내용]

- 도유(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 대 상 : 토지(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60-9번지 2734㎡중 일부-50㎡)
 - 토지가액 : 213만원 (4만2700원/㎡)
 - 사용기관 : 옥천군
 - 동의내역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옥천소방서 소방차고 증축)
 - 적용시기 : 2018. 4. 1. 부터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가칭)청원2 초·중학교,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신축
 - 단재교육연구원 연수시설(북부센터) 확충
 - 청주혜화학교·증안초등학교·오창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 재산의 처분
 - 옥산초·소록분교 교환 처분 - 만수초·공북폐교 교환 처분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 충청북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명칭변경
 - 건설소방위원회 →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바이오환경국 → 바이오산업국
- 기구신설
 - 환경산업국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투자진흥기금의 산업단지용도변경 기부수입을 수입계획에 계상하고 이자수입을 변경하여 그에 따른 금융기관 예치금을 증액

[주요내용]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7년도 말 조성액	2018년도 운용계획				2018년도 말 조성액
		당초		변경		
		수입	지출	수입	지출	
투자진흥 기금	2,773	172	100	5,382	100	8,055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북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이 양 섭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부에 재생에너지정책단(4개과, 41명)을 신설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지난 2011년 '생명과 태양의 땅'이란 도정 슬로건을 내걸고 바이오산업과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흡

합니다.

이에 충북도에 에너지 전담부서 설치, 에너지 자립 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11개 시·군 신재생에너지 전담팀 신설을 위한 주도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추진으로 인구는 증가 추세이지만 주차, 교통, 의료, 체육·문화 등의 제반 정주여건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혁신도시의 주차난 해소와 국민체육센터의 혁신도시 내 건립, 소방청에서 추진 중인 소방복합치유센터 혁신도시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 체제로 운영되던 혁신도시업무 담당 조직이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되는 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혁신도시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래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에 대하여



박 우 양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1500억원 규모)은 충북도에서 제출하는 계획안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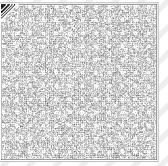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농업에 융합시켜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촉진하고, 첨단농업 교육을 통한 젊은 농업경영인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한국농업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이자, 충북경제 4% 실현을 유인할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미래 첨단농업복합단지를 충북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업의 발전요충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농업 인프라와 주변 환경여건이 잘 갖춰진 부

지 선정 중요합니다.

영동군은 전체가구 대비 41.2%가 농업경영체인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지리적으로도 교통의 요충지이며 금강, 영동천 등의 풍부한 용수를 갖고 있고 연평균 기온이 11.8℃로 충북에서 가장 따뜻하며 일조량이 풍부하여 천혜의 기후 조건과 지질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북도 남부축산위생연구소 및 와인연구소, 유원대학교 등 농업과 관련하여 상호 연계 가능한 산·학·관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무결점 청정지역으로, 오로지 농산업 육성을 지역 발전의 핵심이자 미래 비전으로 삼고 달려온 까닭에 농업 외 다른 기반시설이 없는 영동군에 미래 첨단농업복합단지가 조성되어 농업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북도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미투운동은 성대결이 아닌 서로 인권을 존중하자는 피해자들의 절규



이 숙 애 의원
(교육위원회)

서지현 검사의 고백으로 촉발된 미투운동의 여파와 의미를 되새겨보고, 성폭력 없는 사회조성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피해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용기가 타인들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성폭력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폭제입니다.

언론들의 미투에 대한 보도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폭력을 행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분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입니다.

성폭력이 학계, 종교계, 공공기관, 언론사 등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되어 왔음에도 폭로된 특정사건에만 집중하여 관음증의 형태로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있어 철저히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성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셋째, 미투운동은 본질의 훼손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넷째, 모든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조치가 시급합니다.

다섯째, 전문가가 포함된 충북 차원의 긴급창구 마련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성폭력예방교육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투 운동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폭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남·여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할 때 내 가족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시행 반대, 공정성 확보 촉구



윤 홍 창 의원
(교육위원회)

교육현장의 수많은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모제 교장 제한비율 전면 폐지에서 한발 물러선,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결원 학교의 15% 제한비율을 50%로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입법예고를 철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공모제 교장 임용에서도 문제 제기됐던 코드·보은인사, 끊임없이 이어진 불공정성 시비, 교육현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 국민적 반대 여론에 정치권이 적당히 타협하며 일

어난 ‘제도검증과 정책실행 절차적 부실’의 대참사였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층과 교육현장에서 교장자격이 없는 일반교사가 일정 기간만 채우면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무자격 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대한 것은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오·벽지를 오가며 착실히 교육·연구 경험을 쌓고 승진을 기다려 온 수많은 교사들의 상실감·사기저하와 시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시비 때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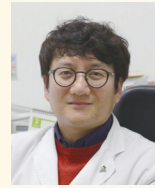
또한, ‘교육공무원 임용 개정안’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느끼는 문제의식과 체감도는 사기저하와 의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교직을 천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의욕상실과 좌절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크게 들으시고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꼼꼼한 점검과 정책보완을 당부 드립니다.



자전거 운동의 생리적 효과

이 순 걸 진료부장
(청주의료원 재활의학과장)



지루하지 않고 부담 없어 남녀노소 모두 좋아

자전거 타기는 달리, 걷기 운동처럼 지루하거나 인내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기 좋은 운동이다.

자전거 운동은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운동으로서, 하체관절에 이상이 있는 환자나 골다공증 환자, 여성·노약자들이 운동하기에 좋다.

또한 비만치료를 위한 운동으로도 적합하다.

심장 : 좌심실의 용적은 커지며 심장 수축력은 증가하면서 일회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써 심장 기능이 향상된다.

이는 더 적은 횡수의 심장 수축으로도 몸이 필요로 하는 분당 심박출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만큼 심장근육에 무리가 덜 간다는 얘기가. 실제로 정상인의 안정 시 심박수가 일분에 70회 정도일 때 마라톤 선수와 같이 우수한 지구력 운동선수는 60회 정도의 값을 갖는다고 한다.

폐기능 : 자전거 운동으로 폐는 탄력성이 증가하여 단위 시간에 공기를 최대로 마시고 내쉴 수 있는 능력(최대 환기 능력)이 커진다. 또한 기도가 확장되어 기도를 통한 공기의 이동속도가 향상된다.

순환기 계통 : 순환기는 혈액을 심장에서 온몸으로, 온몸에서 심장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때 영양물질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열과 호르몬을 전달하기도 한다.

자전거 운동으로 많은 혈액이 심장에서 박출되고 빠르게 이동하여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혈관의 유연성은 좋아지고 더 많은 혈액의 수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안정 시 확장기혈압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유산소운동효과 : 자전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유산소적 운동능력이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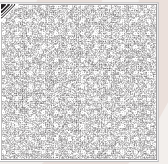
이는 운동할 때 산소를 섭취하여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대운동 중에 최대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최대 산소 소비량이 크다는 것은 체내에 일정치 이상 젖산이 축적되지 않은 채 운동을 더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동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자료가 된다.

하체발달 : 자전거 운동을 근력 특히 하체근력을 발달시킨다. 자전거운동은 페달을 돌리는 하체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 이완되기 때문에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증가하여 굵기가 굵어지며 굵어진 근육 안에는 글리코겐이나 ATP 등 많은 에너지원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

에너지 소모 : 자전거 타기의 에너지 소모량은 달리기나 수영보다 훨씬 높다.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가 체중 70kg 성인 기준 '각 운동의 시간당 소모열량'을 조사한 결과 ▲자전거(실내) 780kcal(시속 25km) ▲달리기 700kcal(시속 9km) ▲수영(자유형) 360~500kcal ▲테니스 360~480kcal ▲빨리 걷기 360~420kcal다.

자전거는 1시간 운동 시 소모되는 열량도 가장 높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가장 긴 종목으로 운동 효과와 이동능력을 모두 갖춘 운동으로 분류된다.



효도계약과 불효자방지법

전 희 태 변호사
(법무법인 주성)



요즘 “자식에게 재산을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시달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해서 부모 자식 간의 씁쓸한 세태를 반영한 말입니다.

재산을 미리 받기 위하여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막상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는 돌보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재산을 도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효도 계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였습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효도계약은 부모가 살아서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자식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약속받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부모가 아들로부터 ‘이 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아들은 위 부담 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모님의 계약 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익이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후 2층 주택과 대지를 증여했으나, 아들이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자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여 이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각서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효도계약을 말로만 다짐받았을 때 나중에 자식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로 남기되, 부양 의무의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고, 자녀가 부양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

제하고 증여한 재산을 모두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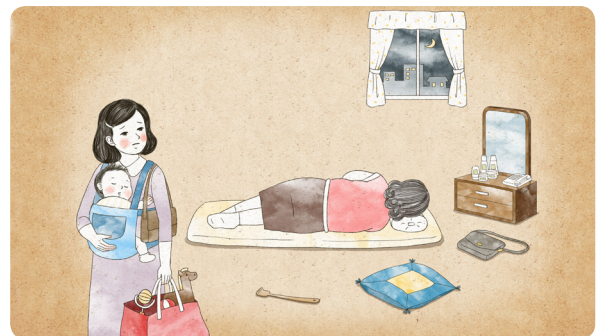
증여하는 재산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전 재산을 준다’, ‘현금을 준다’고 하지 말고, 부동산은 그 주소와 대략적인 시가를, 현금의 액수를 적고 영수증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의 계좌번호와 이체하는 금액까지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부모가 돌려받기가 어려우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은 재산을 되돌려준다”는 내용도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과 같은 입법적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19대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회기를 넘겨 통과되지 못했지만 현재의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과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협의의 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3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상정된 안건 및 기타 현안을 논의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3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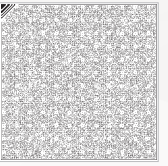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등 농정국 소관 안건들을 심사·의결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3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재난안전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3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63회 임시회 기간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투자진흥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3월 23일 충주시에 위치한 단재교육연수원 북부센터 확충 부지
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의회사무처 총무·의사담당관실 직원들이 3월 17일 사회복지시설인 '청주 에덴원'과 '예심하우스'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나무심기, 대청소 등을 실시했다.



김양희 의장과 도의원들이 4월 19일 '제58주년 4.19기념행사에 참석해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섰던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교육위원회는 3월 7일 충북도특수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본 후
개원을 축하하고 교육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종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증평 모녀 사건의 재발 방지’

충북도의 노력을 촉구한다!



지난 2014년 2월 가난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선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재조명되었고, 당시 정부에서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도입 및 긴급복지지원 강화 조치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이며 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최소한 극단적 자살로 이어지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가슴 아픈 사건이 우리 충북에서 발생했다.

지난 4월6일 오후 5시15분쯤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정씨(46·여)와 딸 이양(4)이 숨진 지 2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된 것이다.

‘혼자 살기가 너무 어려워 딸을 먼저 데려 간다’는 짧은 유서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정씨는 남편이 숨진 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채무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단지 생활고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문제가 동반되기에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과 함께 이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전문 상담과 민·관 지원이 통합된 사례관리 방식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구비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살, 고독사 등의 문제를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취지로 전국 2246개소 읍면동에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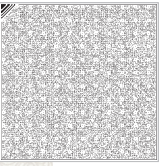
사례관리 방식’을 통한 복지허브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충북에서도 증평군을 포함한 11개 시·군 125개 읍면동에 적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전문 복지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동 단위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 필요 인원을 다시 파악하고 이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자체 예산으로 각 동별 복지서비스 담당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지역 내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직접 방문을 통해 위험 가구를 발굴·관리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증평모녀 사건 이후 충북도 및 증평군에서는 관련 정책 점검 및 도 차원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증평군내 생활고 위기 가구 350세대를 추가 발굴하는 등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발굴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를 담당할 필요 인력의 보장 조치가 빠진다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무늬만의 지방분권이 아닌 현실적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우리 충북도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타 지역 사례의 벤치마킹, 자체 조사·검토 및 전폭적 예산 지원을 통해 더 이상 증평 모녀와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충북의 사회안전망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청원·민원·방청안내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5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충청북도의회 인터넷방송 : <http://assembtv.cb21.net/>
- 트 위 터 : https://twitter.com/chungbuk_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